

광주 '희망교실'에선 꿈이 자라나요

시교육청 사제동행 프로그램

올해 6814개 교실 4만명 참여

학습 공백 채워주고 문화체험

저소득층 학생엔 생필품 지원도

#1. 맞춤형 회사원 A씨는 "이번 주말엔 선생님과 야구장에 놀러간다"는 초등학생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다소 당황했지만 담임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간다니 고맙다는 마음도 들었다. 귀가한 아들을 보니 KIA타이거즈를 응원하느라 목이 쉬고 봄볕에 얼굴이 그을렸지만

어느 때보다 환한 표정이었다.

#2. 중학교 교사 B씨는 방과후나 주말에 짬을 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 대여섯 명을 따로 모아 가르친다.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풀이뿐 아니라 공부방법도 전해준다. 몸은 피곤해도 평소 수업에 뒤처지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항상 눈에 밟혔던 터라 피곤한 줄 몰랐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광주 희망교실'이 올해 6814개(314개교) 교실에서 학생 4만명 가량으로 운영된다. 희망교실은 학교생활과 교육·문화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사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교과 보충학습을 하거나 독서를 통해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가르친다. 문화체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바쁜 부모들 대신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이끌고 야구장·극장·공연장을 찾는다. 정해진 수업이나 교과활동이 아니라서 희망교실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희망기부 활동이 바탕이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희망교실 1곳당 연간 50만원씩 총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급운영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용해 교사들은 학생 환경을 고려해 함께 봉사활동을 떠나거나 문화체험에 나설 수 있다.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학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캠프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고교생의 경우 진로검사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옷이나 안경, 신발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희망교실 운영에 들어갔다. 사회 양극화로 학생들간 교육환경 및 문화체험 기회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사제·급우간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모든 학생이 고루 즐겁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운영 첫해 1607개 교실로 시작해 매년 증가해 올해에는 6814개로 늘었다. 학생들의 호응 속에 대상 학생도 첫해 1만1500명에서 올해는 4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한국고원대학교에 의뢰해 광주희망교실 5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각각 4.22점과 4.2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밝혔다.

김형희기자 khh@kwangju.co.kr



"우리 손으로 숲 가꾸요" 식목일(4월 5일)을 일주일여 앞둔 28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18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나무를 받아든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엔 황사...공포가 된 '먼지'

오늘 고비사막발 황사 영향권...중 동북부 강수량 적어 올 봄 잦을 듯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최근 중국 대륙에서 내려 온 고농도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때문에 큰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 고비사막발(黄沙) 황사까지 건너와 먼지 대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과 27일 중국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중국 북동 지방을 지나서 저기압의 후면을 따라 한반도에 유입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의 황사 발생지는 서쪽의 타클라마칸과 북쪽 고비사막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고비사막이다.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먼지는 60% 이상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나머지는 대만 등으로 간다는 것이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상청은 몽골과 중국의 황사 관측정보와 중국 15곳 미세먼지(PM10)농도, 기상위성영상 등을 통해 황사발원지와 황사 강도를 분석하고 있다.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실시간 통보문을 통해 알리고 있다. 황사는 초미세먼지

(PM2.5·지름 2.5μm 이하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커 미세먼지(PM10·지름 10μm 이하 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도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까지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전망했지만 27일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황사와 국내의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호남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관계자는 "올 봄 황사의 특징은 황사발원지로 알려진 내몽골 및 중국 북동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은 탓에 황사발원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발표한 '2018 봄철 3개월 전망'을 통해 올 봄(3~5월) 광주·전남의 황사발생 일수를 평년 범위(3.4~7.3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상청의 최근 3년간 봄철(3~5월) 황사 발생일수를 살펴보면 ▲2015년 10회 ▲2016년 7회 ▲2017년 6회 발생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4 해질 18:51 달뜨기 16:28 달지기 05:04

습막히는 봄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0/21	보성	구름많음	7/21
목포	구름많음	10/16	순천	구름많음	9/22
여수	구름많음	10/21	영광	구름많음	10/18
나주	구름많음	8/20	진도	구름많음	9/14
완도	구름많음	10/19	전주	흐림	11/18
구례	구름많음	7/21	군산	흐림	10/16
강진	구름많음	8/20	남원	구름많음	7/20
해남	구름많음	8/19	홍산도	구름많음	8/13
장성	구름많음	8/19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북서~북	0.5
	먼바다	남~남서	0.5~1.5	북서~북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서~북서	0.5
	먼바다(동)	북동~동	0.5~1.0	서~북서	0.5~1.0
	먼바다(서)	남~남서	0.5~1.0	북서~북	0.5~1.0

◇ 물때

지역	물때	간조		만조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목포	간조	05:41	18:19	00:14	12:55
	만조	18:19	01:25	00:14	07:53
여수	간조	05:41	18:19	00:14	12:55
	만조	18:19	01:25	00:14	07:53

◇ 주간 날씨

날짜	30(금)	31(토)	4/1(일)	2(월)	3(화)	4(수)	5(목)
날씨	☀	☀	☀	☀	☀	☀	☀
날짜	12/21	7/21	10/20	12/21	10/20	10/20	10/19

봄꽃 향기 가득한 '무등산'

'치유 아이콘' 털조장나무 개화

무등산이 털조장나무(사진)가 뿜어낸 상큼한 향으로 가득 찼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무등산의 깃대종인 털조장나무가 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털조장나무는 수달과 함께 무등산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상징하는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다. 무등산을 비롯한 조계산·곤계산·강천산 등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해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희귀식물이다.

이 나무는 이른 봄에 노란색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산수유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꽃·잎 모양, 잎의 털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상큼하고 맑은 향기를 내뿜어 심신 안정·체내 분비 촉진·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치유의 나무'로 유명하다.



나경태 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털조장 나무는 현재 만연산, 함중재 등에서 개화했으며 오는 4월 중 복수초, 히어리, 길마귀 등과 함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월 단체 "강용주 무죄 환영" 보안관찰법 폐지 촉구

광주 5월 단체들이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무죄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했다.

28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법 경신을 취소하고,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1일 2017년부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강 센터장의 1심 무죄선고와 무죄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강 센터장은 19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고문수사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생존자"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1심에서 강 센터장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경신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보안관찰 규정은 이중처벌 및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적 성격의 법률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별고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주)별고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별고읍 함암길 185-05 Tel. 061)745-9907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기업인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살롬산업(주) 대표 김경애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환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정경태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홍양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복 분말(개량) 15,000원
피조개 분말(개량) 7,000원

구매 문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별고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